

정일봉의 우리소리 승리의 축포성으로 메아리친다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봄빛길은 이 강산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더욱 뜨겁게 끓어치고있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한평생 세월의 온갖 풍파를 헤쳐시며 조국과 인민, 겨레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그 길에서 민족사에 영구불멸할 크나큰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이의 위대한 혁명실적을 경건히 되새겨볼 때면 귀전에 울려오는 하나의 노래가 있다.

정일봉에 우리우리 천하가 드르릉
먹구름은 갈라지고 눈사태 쏟아진다
김정일장군님 불호령소리에 번개가 내닫는다 풀마다 깨어진다
우리소리 우리소리 정일봉의 우리소리

...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다 알고 즐겨 부르는 노래 《정일봉의 우리소리》이다.

이 노래는 백두의 정기를 천봉으로 지니시고 무비의 담력과 신묘한 지략으로 제국주의반동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승리로 이끈이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절세위인상을 정일봉의 천봉만화파의 장엄한 자연현상과 결부하여 생동적이고도 힘있는 시형상으로 승화시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천봉으로 지니신 회세의 위인, 만고절세의 령장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도력으로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시며 주체위업, 민족자주위업을 언제나 승리로 이끄시였다.

일찍이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으로 조선에서 당장 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었을 때 미국의 면상을 후려치며 조선에서 울린 백두령장의 단호한 선언.

나는 미국놈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선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습니다. 배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그놈들이 항복서를 낸다 해도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나옴만 미제의 무장간첩선을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미국놈들에게서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



결국 미국은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디 이때뿐이였는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지난 세기말 공화국에 대한 강도적인 《특별사찰》소동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해나설 때에도 조선에서는 정일봉의 우리소리인듯 핵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와 행성을 뒤흔들었다.

전국, 전민, 전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고 핵무기전파방지구약에서 탈퇴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었던것이다.

은 세계가 뒤흔들었다.
《지구상의 모든 핵폭탄을 다 리쳐도 공화국의 이번 성명보다 강력하지 못할것이다.》, 《조선의 결정은 미행정부를 쇼크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미국을 지략으로 이기고 담력으로 이기시는 천출명장이시고 싸우지 않고 이기시는 최강의 지도자이다.》 ...

정국 20세기말의 조미대결은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로 막을 내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력사의 료례 없는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조국

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지난 세기 90년대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던 시기였다.

이 준엄한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우리 국가의 전반적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였으며 평할한 지략과 비범한 령군술로 반제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였다.

조국과 인민, 후대들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험난한 신군정에 결연히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의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사회주의수호전의 력사적승리가 이룩되고 나라의 군력은 억척으로 다져졌으며 자주와 정의의 핵력성이 이 행성을 뒤흔들며 조선은 핵강국의 지위를 당당히 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 수호전을 이끄시는 업훈한 속에서도 강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시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조국이 억척의 시련을 겪던 시기 국외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

는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시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질 그날을 위해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다. 명철날, 휴식일, 생신날이 따로없이 불분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숨결과 체취는 위험천만한 최전연초소들과 공장길, 농장길에도 력력히 새겨져있으며 애국헌신의 성스러운 령도에서 촉발된 각자, 삼복철강행군에 대한 혁명화들이 수없이 태어났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인공지구 위성이 하늘을 날고 원산산업을 기동으로 하는 지식경제의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대대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그야말로 정일봉에 우리우리 천하가 울리고 적진이 무너졌으며 조선은 사회주의승리의 길, 부강번영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나라의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력사의 땅 판문점을 시찰하신 그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천명비에

새겨진 글발을 한자한자 읽으시며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길에 굳게 기어이 하나로 된 통일조국을 안겨주시길 굳은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이 드넓은 신념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 천만환 최전연초소들과 공장길, 농장길에도 력력히 새겨져있으며 애국헌신의 성스러운 령도에서 촉발된 각자, 삼복철강행군에 대한 혁명화들이 수없이 태어났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인공지구 위성이 하늘을 날고 원산산업을 기동으로 하는 지식경제의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대대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력사의 준엄한 초행길을 헤쳐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사회주의조선을 준엄으로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으며 민족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의 빛나는 한생이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 아니 온 겨레는 정일봉의 우리소리를 승리와 기적의 우리소리, 원수들을 전멸케 하고 강국의 새봄을 안아온 정의와 애국의 피성, 번영의 봄우리로 구가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가장 숭고한 경의로 노래 그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천명비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는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갖추는것을 민족자존의 중대사로, 국가의 최고리익과 안전을 위한 조미의 문제로 내세우시고 민족사적인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시어 주체조선의 절대적힘을 마련해주시였다. 국가현장을 오가시며 흥정하시였으며 그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천명비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는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력사의 준엄한 초행길을 헤쳐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사회주의조선을 준엄으로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으며 민족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의 빛나는 한생이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 아니 온 겨레는 정일봉의 우리소리를 승리와 기적의 우리소리, 원수들을 전멸케 하고 강국의 새봄을 안아온 정의와 애국의 피성, 번영의 봄우리로 구가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가장 숭고한 경의로 노래 그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천명비에

들에게 단호히 선언했다.
행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이것은 백두가 터치는 피성, 공화국의 존엄과 리익을 건드리고 헤치려는 적대세력들을 추호도 용납치 않고 단호히 정벌하려는 조선의 단호하고 힘찬 멸적의 선언이다.

만민시련을 헤치시며 공화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위대한 강국으로 빛내여주시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과 후대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위민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인민의 웃음소리는 사회주의의 강력이고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그 어디에서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국이라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뜨거운 인민사랑, 굳센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의하여 사상초유의 극난을 헤쳐나가는 어려운 속에서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법령이 발표되고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화거리, 보통강강안 다락식주래구, 미림송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마시령스키장, 료포온실농장 등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별천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고 황금벌, 황금산, 황금해의 세력사가 펼쳐졌다.

이뿐이 아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결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어 따듯이 품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열과 정에 의하여 건국 이래 대동원이라고 할수 있는 악성전염병사태가 세계보건사상 류례없는 가장 짧은 기간에 해소되고 방역대응을 이룩하는 기적도 창조되었으며 열과같은 후대사랑, 미래사상이 어려웠던 새로운 육아정책이 실시되어 만사마무의 심금을 울리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셔 정일봉의 우리소리를 원수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공화국인민에게는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는 기적과 변혁, 승리의 축포성이 되어 오늘날도 천하를 드르릉 울리고있다.

2월의 봄명절과 더불어 더 높이 울리는 정일봉의 우리소리.

이는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마중가는 천만인민의 힘찬 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원동력,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이 되어 머지않아 이 땅에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게 할것이다.

본시기자 김철진

언제나 그리하지만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는 2월이 오면 온 나라 인민들은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러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의 존안이 더욱더 사무치게 어려와 눈굽을 뜨겁게 적시곤 한다.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의 소박한 생각을 그대로 정책에 담으신 어버이장군님, 자신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해놓았을 때까 제일 기쁘고, 인민의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시며 인민위반 그걸에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신 인민의 어버이.

그러서 인민들은 그 어데 가지 여서도 그 누구를 만나시어도 장군님의 첫 물으심은 언제나 인민이었다고, 그의 마음 첫자리엔 언제나 인민이 있었다고, 오늘도 격정에 넘쳐 말하고있는것이다.
그의 첫 물으심도 인민, 그의 마음속 첫자리에도 인민!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을 공장에 보냈던 어느한 녀성지배인은 찾아오는 사람에게 감격에 겨워 이런 말만 던지려 외었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은 참으로 인민밖에 모르는분이십니다.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어서 가실 때까지 오직 하나 인민에 대한 교시만 하시였습니다. 그저 보시는것만 다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아주 잘하였다. 대단하다. 수고했다... 정말 생각할수록 눈물만 자꾸 흘러나옵니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리

시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일, 인민이 바라는 일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완공된 살림집을 보시여도, 새로 건설된 유희장을 보시여도, 풍치수려한 자연경치를 부감하시면서도, 공연을 보아주시여도, 작은 소비품 하나를 보시여도, 양어장에 넘쳐나듯 물결치는 물고기떼를 보시여도 늘 인민들부터 먼저 생각하시였다.
그이가 주체100(2011)년 12월 16일 21시 13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도 인간이시기에 밤이면 주무셔야 하고 힘드시면

오늘 이 땅에선 인민을 위해서든 돌우에 두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을 위해서든 돌우에 두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을 위해서든 돌우에 두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을 위해서든 돌우에 두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에 안고계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눈물이 나오는데 감할수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이 나라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전부와도 같았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령도자가 있지만 생애의 순간순간을 오로지 인민에 대한 생각으로,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으로 세계간 령도자는 고급으로서 그 어디에도 없다.

오늘 이 땅에선 인민을 위해서든 돌우에 두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을 위해서든 돌우에 두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을 위해서든 돌우에 두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조용히 찾으신 옥류관

주체54(1965)년 3월 어느날 손님봉사에 드바브던 옥류관의 점대원치너는 그만 온몸이 굳어졌다.

현판으로 수수한 차림새를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들어서시였기때문이었다.

정중히 인사올리는 점대원치너에게 그이께서는 물래 들어온다는것이 그만 동무에게 들켰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매표구에서 손수 끊어오신 국수표를 주시며 옥류관의 국수질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 손님들과 같이 국수를 먹여보고자고 하신다. 그리고 자신께서 왔다는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며 다른 손님들과 똑같은 국수를 가져올것을 당부하시였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어 안타까이 입술만 깨물고있던 점대원치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시금 재촉하시여야 일반손님들과 똑같은 국수를 가져다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곁에 앉은 손님들의 국수와 다름이 없는가를 확인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점대원에게 이만하면 괜찮다고, 마음이 인나고, 옥류관에서는 언제나 국수의 질을 이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따듯이 이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오실 때처럼 조용히 옥류관을 떠나시였다.

유희장의 첫 손님

고 청을 드렸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다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마음놓고 아이들에게 유희기구를 타라고 할수 있겠는가, 자주 나오지도 못하겠는데 다 돌아보고 가자고 하시였다.

일군들이 관성단차만은 타시지 말아달라고, 위험하다 고 간절히 아뢰였건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라고 줄길 유희기구인데 나라를 주시며 옥류관의 국수질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 손님들과 같이 국수를 먹여보고자고 하신다. 그리고 자신께서 왔다는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며 다른 손님들과 똑같은 국수를 가져올것을 당부하시였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어 안타까이 입술만 깨물고있던 점대원치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시금 재촉하시여야 일반손님들과 똑같은 국수를 가져다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곁에 앉은 손님들의 국수와 다름이 없는가를 확인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점대원에게 이만하면 괜찮다고, 마음이 인나고, 옥류관에서는 언제나 국수의 질을 이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따듯이 이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오실 때처럼 조용히 옥류관을 떠나시였다.

자신의 소원과 결심

어느때 가을이었다.

한 농장의 새 문화주택마을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단히 기쁘시였다.

전기난방향 탕, 넉직한 부엌, 연필한 태양로, 자연로운 어버이 거들 만족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그이의 결심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어드렸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설레였다.

그러나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깊은 생각을 잠겨계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일군들은 그이의 다음 교시를 듣고서야 깨달

본시기자 유금주

위인의 첫 물으심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기뻐하는가.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이런분이시였기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 비준하여 주신 문건에도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담으신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너무도 잘 알려져있는 이야기이지만 온 나라 인민들은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 비준하여 주신 문건에 대한 이야기 쓰여져서 마음을 안고 전해가고있다.
맛있는 그날에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명태와 청어를 평양시민들에게 팔아주었을 때 시민들이 대단히 좋아한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이번에도 지난해 해와 같이 맛있는 물고기들을 마련하여 새해를 맞는 평양시민들에게 팔아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배가 원산함에 도착하면 물고기를 빨리 수송하여